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二面

社說 秘密主義를 打破하라

一

「國民에게 먼저알린後에 그의 마음으로부터의 協力을求하라」 이것이 貴衆兩院의 一致된要求이다 再開된지 一週日餘 議會의論戰은 政府의施政方針演說에對한 質問戰으로부터 豫算總會에로 옮아가서 八日 衆院本會議에上程된 稅制改革法案과아울러 더욱活氣를 띠게되엇다。論戰의焦點은 事變處理와 對第三國外交調整問題, 戰時國民生活安定問題에잇는데 政府當局의이에對한 說明은 米內首相의 一般施政方針演說이고 有田外相의 外交演說이고 櫻內藏相의 財政方針演說이고 그모두가 너무나 抽象的이며 報告形式을 버서나지못하여 施政演說에 커다란 期待를가젓던 一般國民은 모두 失望치 안흘수업섯다 따라서 貴衆兩院의 質問者가 政府에對하여 事變處理 對外關係及國民生活安定에對한 具體的方針闡明을 異口同聲으로 要求하는것은 大政을 翼贊하는議員으로서의 適正한 態度라할것이다。

二

事變處理問題에 言及하는者는 반드시 汪兆銘氏를 中心으로한 新政權樹立과 및 新政權과 帝國과의 和平交涉條件을 質問하며 百三億의 尨大한 豫算問題에 言及하는者는 반다시 明年度의 物動計畫內容과 및 어가튼 尨大豫算을 實行할수잇겟는가를 質問하여 本會議에서고 豫算總會에서고 每日 거의꼭가튼質疑應答을 하게되므로 政府에서도 兩院의空氣와 및 一般國民의 輿望을 살피어 八日衆院本會議秘密會에서 十五年度物動計畫을 說明하엿고 또十日衆議院豫算總會秘密會에서 支那新中央政權과의 和平條件內容을 說明할것을 言明하여 從來의 絶對秘密主義를버리고 비록 秘密會이어서나마 物動計畫 和平條件等을 說明하게되는것은 아프로의 議會에서의 議事審議上 커다란意義잇을뿐만아니라 一般國民의 協力을엇는데도 만흔效果가잇슬것으로 밋는다。

三

政治의 要諦는 모든事態를國民에게 率直히 알리고 그들의마음에서 울어난協力을 獲得함에잇다 民心을捕捉치못하고 民心을 陰鬱케하는 政府로서 그자리를 오래동안 繼續한例가적으며 設使잇섯다고하더라도 그런政府는 政府와 國民의 離反을 招致할뿐더러 國家에 無益한 政治밧게하지못하엿다고 할수잇다 그가까운例로서 阿部內閣이 事變處理를 中心으로 自主外交를標榜하며 對蘇, 對米, 對英國交調整에 힘써왓스나 結局不過四個月餘에 退陣치 안흐면 안되게된原因은 民心을 收攬치 못하엿던데잇는것은 周知하는事實이다 事實의 眞相을알어야만 마음것 協力도하고 要求도할수잇는것으로 眞相은 알리지안코 國民의協力만 要求하엿댓자 그效果는 期待에 어그러짐이만흘것이다 事變處理問題 對外關係도 그러커니와 日常國民과 關係가기픈 國內問題는 더욱 그러한것은 이미明確히된 事實이다 當面問題인 米穀問題 石炭 電力問題等 國民의 協力이緊要한問題는 發表할수잇는대로 國民에게 널이알리어서 참마음으로政府의 施策에 協力하도록하여 먼저民心의 動向에 捕捉하여야할것이다。

八日의衆議院本會議
稅制改正問題中心討議
卅一件上程코質問戰展開

【東京電話同盟】前夜來大雪이내린 八日의議會에는 傍聽人이 적엇다 每日議會에는 一千二, 三百人이 모아들엇스나 이날은十時頃에겨우 七, 八百人이왓을뿐으로 衆院의 入場도 通例의 十時半을一時間느주어서 十一時半에傍聽席에 入場시켯다 定刻十時開會의 貴族院本會議에서는 지난二日의本會議에서 質問을保留한 大河內輝耕子가이러서서 一身上의 辯明으로「東亞新秩序」를 取消하엿다 衆議院의齋藤隆夫氏의 舌禍問題에關聯된것인지 이件에對하여는모두 神經過敏이다 …十時十分開會의 衆議院本會議에서는 有田外相, 柳川興亞院總務長官에 質問하고 가다가 …田中國務(?)局長, 大矢主稅局長 …라고六尺巨軀에 어울리지안케 겸손…

【東京電話同盟】八日의 衆議院本會議는 午後一時廿五分開會, 小山議長으로부터 豫算委員의 提議에依하여 本會議에서 秘密會를開催하겟다는 通告가잇섯다고報告, 日程에드러가

一、昭和十二年法律第八十四號中改正法律案(支那事變에關한 臨時軍事費支辨을하기爲한 公債發行에關한件) 一、昭和十五年一般會計歲出財源에 充當하기爲한公債發行에關한法律案

一、臨時軍事費特別會計法案 一、作業會計法中改正法律案 一、遞信局東京出張所假舍工事其他建物及 그附屬設備의

新設擴張에要하는 經費에關한法律案 一、昭和十三年法律第五十三號中改正法律案(印刷局特殊運轉資金補充에關한件)

을一括上程後櫻內藏相으로부터 提案理由를說明한다음 右六件을一括하여 議長指名의二十七名委員에附託하고이어서

一、所得稅法案 一、法人稅法案 一、特別法人稅法案

一、外貨債特別稅法中改正法律案 一、配當利子特別稅法案

一、臨時利得稅法中改正法律案 一、營業稅法案 一、相續稅法中改正法律案

一、淸涼飮料稅法中改正法律案 一、砂糖消費稅法中改正法律案 一、酒稅法案

一、揮發油稅法中改正法律案 一、物品稅法案 一、織物消費稅法中改正法律案

一、通行稅法案 一、入場稅法案 一、遊興飮食稅法案 一、取引所稅法中改正法律案

一、狩獵稅法中改正法律案 一、印紙稅法中改正法律案 一、骨牌稅法中改正法律案

一、大正九年法律第五十一號中改正法律案 一、明治四十四年法律第四十五號中改正法律案(砂糖消費稅, 織物消費稅等徵收에關한件)

一、支那事變特別稅及臨時租稅增徵法廢止法律案 一、營業收益稅法廢止法律案 一、資本利子稅法廢止法律案

一、法人資本稅法廢止法律案 一、臨時租稅增徵法中改正法律案 (以上政府提出)

貴族院各派交涉會

【東京電話同盟】貴族院에서는 八日正午부터 院內議長室에서 各派交涉會를열고 左記二項을協議한後 午後二時散會하엿다

一、十一日 紀元節에 際하여 奉祝…

一、近近 政府로부터 提出될 …

產業資本壓迫으로 生產力擴充阻止
小山氏(民政黨)負擔過重도痛論

稅制改革關係三十一件을 一括上程, 櫻內藏相으로부터 別項과 가치 提案理由의 說明이잇는다음 質疑에드러가서

小山倉之助氏 (民政, 登壇) 今回의 稅制改革은 劃期的의 것인데 現下戰時體制에 卽應하여確立된것인가아닌가戰時財政의租稅制度의 立案에 當하여는 全國民이 一齊히 租稅를 負擔할所謂均稅의 普遍化에 眼目을 두지안흐면안된다 政府는 今回의 稅制改正에는 經濟政策과의 調和를 念願에 두엇다고하나 大體戰時에잇서서의 經濟諸政策이란무엇인가 貯蓄奬勵公債消化와아울러 增稅에依하여 인플레의 防止를 圖謀한다고하는데 아마이번의 增稅의 激增되는 것이다 生產力擴充은 戰時經濟의 最要點인데 이生產力의 源泉이되는產業資本에 對한 課稅方法의改正은如何한가 …從來의例를이번에廢止한理由는어데잇는가 …法人所得稅에 對하여 어떠한가 法人所得稅에對한 現行超過累進稅率을 引用하여 改正法案에잇서서의 增稅를 指摘하고 이와가튼改正은 產業資本의 活動을阻害하여 戰時에必要한 生產擴充을阻害하는것이 아닌가 改正法에依하면 法人의增稅額은 이를損金에算入하지안는다는 方針이라는데 …法을採擇하고잇는데 이結果는 稅金이 不當히增大한데比하여 五, 六割程度의 增稅가되는데 그稅和策이잇는가 特히輸出產業에對하여 戰時所得稅를 課하는 이것은 現下困難한 輸出貿易에 從事하여 外貨獲得에 從事하고잇는 輸出產業을 助長하는 所以가아니다 地租 營業稅를 國家에서徵收하여 이를 地方團體에分與하는結果 獨立된 財政觀을 일코 그機能은 喪失될수밧게업다 地方團體는 남어지僅少한 財源으로부터 利益을獨占하는 少數者만이 利益을獨占하는 것이아닌가 近時組合及 特殊法人에對한 免稅制度가 續出하고잇는데 그結果도 드리어負擔을 重하게하는結果가되지안흘까 政府는 地方稅預定의 稅收를엇지못하여 財政計劃에 破綻이 생기지안흘까 最近은 組合에企業이 자…을認可할方針이라고 드릿는데 그리하면 地方에서 되나안되나 事業을일으키어 그結果少數者만이 利益을獨占하는 弊害가생길念慮가업슬까

現經濟事情에即應 負擔均衡이目標
稅制改革에對한藏相說明

【東京電話同盟】八日衆議院本會議에서의 櫻內藏相의 稅制關係改正法律案에關한 說明內容은 如左하다

이번 稅制改正은 압서말한바와 가치 長期建設의 前途에잇는我國現下財政經濟諸事情에 卽應하여 稅制를 整備確立함에 主眼을두어 첫째中央地方을通하여 負擔의 均衡을圖할것, 둘째現下緊要한 經濟政策과의 調和를圖할것, 셋째收入의 增加를圖하여彈力性잇는 稅制를 確立할것, 넷째稅制의簡易化를圖할것等의項目을 目標로 現行國稅及地方稅制度의 全般에直하여 根本的檢討를加하여 有效適切한 改正을斷行하여써 多年의 懸案인 諸問題를 解決하는同時에 新事態에 卽應한 稅制를 確立하려는것이다 國民의 負擔力에相應한課稅를 하는것이 稅制의 使命이므로 이번改正案의 作成에當하여도 國民의負擔力에 應한稅制를 確立함에 最大의苦心을하엿다 卽 먼저 直接國稅의 體系를改組하여 所得稅를 分類所得稅와 綜合所得稅二種으로 區分하여課稅하는制度를 採用하고 分類所得稅는 所得의性質에應하여 區分하여 資産所得에는最重하게 勤勞所得에는 輕하게課하기로하여 各種所得間의 負擔의 均衡을꾀하고 綜合所得은 各人에對하여 一切의 所得을 綜合하여 相當程度以上의 所得者에限하여 相當高度의 累進稅率로써 賦課함에依하여 大所得者의 目的을 達하여 所得階級의 負擔均衡을圖하기로하엿다 또事變下의 影響等에依한增加利得에對하여 臨時利得稅를 增徵하여 事變下의 負擔調整을圖하는同時에 間接稅等에잇서서도 奢侈的消費또는 不急消費에 重課할 方針을取하엿다 다음에地方稅에잇서서도 國費多端한이때에 多大한 犧牲을拂하여 從來負擔不均衡의 根源이라고하던 戶數割을 全廢하여 斷行하는同時에 所得稅의 附加稅를 廢止하고새로 分與制度를 採用하여 負擔의地域的不均衡을 是正하기로하고 國稅 地方稅의 全般에直하여 負擔의公平을 期하려고 努力하엿다

第二로는 經濟諸政策과의調和의 問題이다 稅制가 經濟政策과 緊密한連絡을 가저야함은勿論으로 特히 事變下의 稅制改正으로서는 이點에十分考慮하여야 한다고생각한다 이번改正에서는 增稅의 決定及 配當企業에對한 課稅 利子에對한課稅 間接稅의 課稅物件의選擇等에 關聯하여 現下의緊要한 生產의增加 貯蓄의 奬勵 低物價의 堅持等 諸政策의 遂行에 支障이업도록 十分考慮하는同時에 此際의 臨時特別의 措置로서 適當한方策을 講하기로하엿다

第三은 增收及稅制의 彈力性의 問題이다 昭和十三年度以來 每年 增稅를 하고잇는바 現下內外의情勢는 我國財政의 現狀將來를 생각하면 今後에도事變費 國防費 其他一般經費는 相當長期間 多額의經費를 必要로하는 實情에잇스므로 此際에 稅制改正에當하여 相當額의 增收를 行함이 必要할뿐만아니라 또不得已한 措置라고 밋는바이다 그리고我國財政의 將來를생각하면 此際에相當增收를圖하는同時에 將來의財政需要에 應하기 容易하게 伸縮할수잇는稅制를 確立해둠이必要하다고생각하엿스므로 …

…現行直接國稅의 體系를 改組하여 새로운分類所得稅及綜合所得稅를 倂用하는 體系로 하는것이다 …地租營業收益稅及資本利子稅의 三收益稅로써 …이번改正에서는 …地方稅制의改正에 關하여 …地方稅制에分與稅制를 採用하기로하엿다 卽地方財源의 地域的偏在를 調整하는同時에 一面地方稅率의 調和를考慮하여 새로分與稅制度를 採用하고 …家屋稅及營業稅等 物稅로써 地方의 基礎確立等을目標로 …各地方團體에 …(寫眞, 櫻內藏相)

尨大한增稅案보다 官吏의自肅이必要
小笠原氏質問

小笠原三九郞氏 (政中島)

一、藏相은 前內閣의 稅制改革案을 完璧이라고생각하고 踏襲하엿는가

一、事變下의 財政政策과함께 一貫한目的에 適合하지안흐면안되는데 戰時財政에 必要한것인가 그리고 公債增稅 모두가 …

…增收는 生產擴充, 物價政策等과 矛盾되지안는가 政府는 豫算을 더욱줄일생각이업는가 稅制改革의 目標를 어데다 두엇는가 …

…戰爭經濟의 要諦인 增稅의 …財源의 一이 아닌가 …

…이稅制改革은 低物價政策에 背馳되지안는가 …豫算의 …自肅이 …

櫻內藏相

前內閣으로부터 踏襲한 …增稅에 對하여는 相當한 …

…

…米內首相 이번增稅는 巨額인데 國民은 非常時인만큼 國家의 …協力해주기바란다 …

櫻內藏相

一、稅負擔의 均衡에關하여는 이번改正은所得稅負擔者는 百八十萬人에서三百八十五萬人으로 增加하엿다 負擔均衡의目標는相當程度도 實現되어잇다고밋는다

二、貨幣利子의 控除에對하여는 特히注意해주기바란다

三、다음에 戰時所得稅에 關하여는 二割以上의 所得에對한 稅率을 加重하엿는데 이것은 戰時의 尨大한利益에 對하여 課하는것으로 資本을 壓迫하는것은아니다 增稅만이 인플레防止의 唯一한 對策이아니다 다른對策과아울러 인플레防止에 備할생각이다 從來法人의稅金은 損金에 計算하고 잇섯는데 이것은 稅負擔의 …改正案은 當該年度의 稅金은 그해損金으로서 算入하지안키로되엇다 特殊會社는減稅 免稅되고잇는데 從來課稅치안흔 …

午後二時卅八分再開 堀尾次郞(?)氏(民政)登壇 먼저 쟈나리스트(?)… 議院가 入鉢一字라 文字를 世界的의 意味를가진것가치 …解되지안흘까고 藏相에 注意한다 …

米穀出廻策으로 奬勵金云云은誤解
島田農相答辯

…

九日의兩院

【東京電話同盟】

▲貴族院 本會議는 委員會를 事務便에依하여 休會

▲衆議院 午後一時부터 本會議를열고 八日에繼續하여 所得稅法改正三十件의 稅率案에對하여 池本甚四郎氏(民政)森田福市氏(政久原)의 順序로 質問을 行한다음 適當한 時機를보아 八日에繼續하여 秘密會를열고 政府로부터서 物動計畫에關한說明을 求하기로하엿다 一方午前十時부터 豫算委員會를열고 助川啓四郎氏(政中島) 松村謙三氏(民政) 三宅正一氏(社大) 田谷秀治(?)氏(時同) 牧野良三氏(政久原)의 順序로 質問을 繼續한다그리고 午前十時請願委員會第一分科會, 赤字公債發行에關한 法律案(政府提出)外五件委員會委員長及理事互選後 午後一時부터 請願第二分科會同委員會를열고 齋藤隆夫氏의 削除前의 速記錄을 參考資料로 本格的인 質問을 行함과同時에小山議長을參考人으로 喚問하는件에對하여協議할터이다

米大使香港向發

【上海八日發同盟】駐支米大使존슨氏는 八日午後二時出帆의 …號로 香港向發 當分間同地에 滯在하다가 月末에重慶으로갈터이다

市況 (八日)

◆生米後引◆ 當限 三三·六五 先限 三六·〇〇(?)

少年歷史讀本 大發賣中! 朝鮮日報社出版部發行

各帝大病院常備藥 造血아옷호르몬 神経衰弱 アルセンブルトーゼ(아르센부르토-제)
ブルトーゼの造血作用에 強壯劑 …
小瓶 … 大瓶 …

驅虫에依한國民保健運動 大陸에서治安工作 マクニン으로驅虫工作 虫退治 マクニン(마구닌) 먹기쉽고·잘듣고·값싸다

洪命憙先生著 林巨正 火賊篇(中)(第四卷) 方今大發賣中!

숨긴才操 …
六大景品 無代進呈 「新雜誌青年の友」發賣紀念大宣傳 …青年の友社 宣傳係

桃屋의 花らっきょう 朝夕의食卓에

朝鮮作家名作全集 … 最新書式大全 ¥300 現行六法全書 ¥480 永昌書館

興亞의前衛 파이롯트 萬年筆 使用簡單 構造堅實 파이롯트獨特合金 가장쓰기조흔無類의耐久 ¥2.00

문등病新治療劑 高木化學製藥所 …

開發? 保勝? 十字路上의 靈峯金剛 ①

【長安寺에서江原特派員池泰鎭第一信】 천하절승금강산을 보승하느냐 개발하느냐의 숙제는 세상에서 떠도든지 오래된 사실이어니와 총독부에서는 도중당에게 [illegible] 것보다는 차라리 합리적채용을 하는편이 나흘것이라하여 여러가지 조건을 붙이어 채용키하는 일반보승구역내에서는 지역을 제한하여 개발하기로 대략결정을 하고 현지조사를 하게되엇다 그리하야 총독부각국과 계관[illegible] 소재지인 강원도에서 각계관계자를 한데로 되엇는데 [illegible] 사회교육과그외 [illegible] 장내의 철도예 경성에까지 실펴게된 철도국 관계자 강원도에서는 도농과지 [illegible] 상황을 보고저 보안과경무과에서까지 나오게되엇다 이가치 주목을 끄는 일행십오명은 오는 [illegible]일부터 나흘동안 내외금강을 상세히 답사하

고 [illegible] 각자의 견해를 [illegible] 하게되엇는 바 장차어떠케 결정이 될는지는 모른다는 말이거니와 [illegible] 되는 보승구역내에는 노다지를 캐

여 일확천금을 꿈꾸는 모리배들이 벌써부터 출원을하여 사백여건에 달하고잇다 평시에는 수없이 갈시나가 지도안하 채굴을 한다 하여도 재산이 맞지안하므로 내버려두 어떤것이 이번수번이 발생한

이때 수십가지 수십배나 올리간것을 기회로 [illegible] 세계공원의 보승을 헐고 라도 기어히 캐내려고 애쓰는것은 반가운 현상은 아니지만 총독부에서는 기괴 고려를 거듭하여 야 안누리지

하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방침이라고하여도 그다지 [illegible] 경제는 아니므로 현지를 보다음 어떠한 일부를 개발하리라는것이 정당한 관측이오 도리허도 그러한것 같다 다만 주목을 끌고잇는 이번

의 조사결과가 어떠할는지는 모르지만 당국의 기본고려를 요하는바이다 이가치 중대한 책임을 지고 떠난 조사반에 참가할 일행은 다음과같다

總督府側 ▲社會敎育課 [illegible] ▲山林課 [illegible] ▲鑛山課 [illegible] ▲林業[illegible] 江原道側 ▲山林課 [illegible] ▲保安課 [illegible] ▲[illegible]

當局의 調査班一行 六日부터入山踏査

冬皆骨、無人境에日暮道遠!

금강산속에 무친 광석을 개발할 길을 떠나게되엇다 절종 금강산 한느냐 세계의 절승을 보호하느냐 에는 경해에는 손님이 업서 쓸쓸한 나의 열시(寂)는 일행은 유일 쓸쓸한 넓은 도로를 자동차는 마음 아침아홉시 내금강에서 대형자동차를 꺼 한시간을 달리어 신계리(新溪里)에 일르럿다 이곳에는 보승 [illegible] 잡어라고 현지조사의 첫

구역외라고해서 이미 허가를 어더가지고 한본에 칠천원이나 하는 노다지를 캐내고잇는 고주파계의 금강특수광(金剛特殊鑛)주식회사가 잇는데 광석을 채굴하고 뒷

처리를 하지안허서 통행인의 눈을 어지럽게하엿다 일행은 자동차에서 내리어 사무소에 들어가 잠깐 쉬인다음 도보로 온정리(溫井里)를 넘는 편한 고개를 십리가량 올라갓

다 인적이 업고 이곳에 여름까 [illegible] 고원한것이 [illegible] 전번세계 대전중경기때 [illegible] 울라가는 바람에 처방이 [illegible] 비로소 영역을 처녕한곳이 이곳이라한다

이곳 [illegible] 사람이 [illegible] 스니 이곳저부터는 [illegible] 최초업는 험한길로 [illegible] 발동을 떼고 [illegible] 올라와 올가지는 [illegible] 을 밟는것도 [illegible] 나엇다 욱어진 나무사이를 [illegible] 치면서 [illegible] 를 올라가니 아픈티여 [illegible] 산장는은 [illegible] 을 [illegible] 하고 언제부터 살아는지 [illegible] 러진 노송나무의 [illegible]

[illegible]

다 [illegible] 마음을 조리게하는 것은 모리는 [illegible] 그자동범 [illegible] 이가는곳이 아니므로 [illegible] 은 모두이곳에모이어 [illegible] 홍인 지금은 [illegible] 수업게되엇다한다

제일먼저 자저오는 이곳에서 그 들은 무엇을 보앗스며 [illegible] 생각하엿는지 [illegible] 내려와 휴게소에서 [illegible] 올룰 [illegible] 으로 끄린 [illegible] 스니 눈에보이노 [illegible] 다운 경치였다

때는 오후 [illegible] 행은 올라오는 [illegible] 다시도리켜내 려가 [illegible] 이곳도 [illegible] 는데 이곳도 [illegible] 로 눈속으로 [illegible] 먼저보던것과 조금도 다를 [illegible] 다 이곳광맥은 가로 [illegible] 이야기하는 [illegible] 올라가는 모양이나 이가진 [illegible] 을 차자보고 [illegible] 가 [illegible] 이날아침 떠날때

[illegible] 어둠속에 [illegible] 이곳에 [illegible] 면 [illegible] 도 [illegible] 보 [illegible]

(사진은 귀면암의기암)

南大門市場通 昨夜에大火

四戶全半燒、損害六萬圓

[illegible] 팔일오후열 [illegible] 시사십분 부내 남대문통(南大門通)[illegible] 유과점(油菓店) 박정희(朴[illegible])상점에서 불이 일어나 기름기운이 만흔이집을 한시간에 태워버리고 불길은 이상점과 좌우로 [illegible] 안전(安田)양화점 태흥(泰興)상점을 반소하는동시에 남대문지장으로 [illegible] 부어가 경성소방대 [illegible] 을 반소하고 여[illegible] 박정히상점 유과 다 원인은 전기 [illegible] 부엌에서 부주의한탓에 [illegible] 불이 [illegible] 손해는 약 [illegible] 만원이다

御聖火

今日京城에

午後四時卅分御到着豫定

황기이천육백년을 기념하는 (釜山)에 어상륙하신뒤 연동시에 봉송의 기렴을 한층 더 [illegible] 이세(伊勢皇大神宮)으로 [illegible] 황대신궁 [illegible] 에 봉송 [illegible] 부터 조선신궁으로 모시어 울 어성화(御聖火)는 부산

되어다 성화는 오후 일간도에서 선발된 성화대 십오분에 경성제일 [illegible] 차례차례의 호 등포(永登浦) 기린 [illegible] 일도 일등성으로 [illegible] 어동과로 경성에 [illegible] 드디어 [illegible] 예정의 코ー스를 거 치어서 동사시 [illegible] 지 경성에 어도착하시게

서선궁에 어도착하실 예정이다

紀元節奉祝式에 學生代表三千參集

기원 이천육백년의 기원절을 기하여 오전 십일시부터 조선신궁 대전에서 전조선 학생대표 삼천명이 참집하여 봉축식을 거행하여 뜻기 픈 기원절을 마지하기로되엇다 동시에 조국정신의 앙양에 노력하고 [illegible] 향하여 총후반도학도로서의 각오를 새롭게 하기로 되엿다

아름다운朝鮮말을

京城中央放送局第二放送部에서純化運動

放送技術研究委員會를新設

경성중앙방송국안에 잇는 제이방송부(선[illegible]방송부)에서는 작년구월 제일방송부(국어방송부)와 나뉘인 이래 부내의 기구를 한층더 강화하는한편 『프로』쇄신을 위하여 힘써오는중으로 저번의 가요정화운동(歌謠淨化運動)에도 그일반(班)이 나라디오』를 통해서의 『조선말의 순화(純化)』와 바른말의 『보급화』에 힘쓰고저 방금연구중이다 나잇거니와 금번특히 조선말방송 이일반사용의 조선말에 미치는영향에 대하여 느낀바잇서서 『라

으로 파급독립하여 제살림을시작하야 벌써 만팔년에 가까워오다 『아나운써ー』를 비롯하여 일반 방송자들이 쓰는 조선말은 대부분 그용조 (資料)로 보나 어감(語感)으로 보다심지어는 문법으로 보나 연구가부족한것이 만하 항상 청취자들로부터 비난의 투서가 들어오고잇는 현상(現狀)임에 비추어 먼저 부내에서부터 이를 고처나가려는의도아래 방송기술연구위원회(放送技術硏究委員會)』가칭』를 두어 『아나운써ー』들로 하여금조선말을 연구케하기로된것이다 아직 그구체적방법에대해서는 연구중이나 대개 한달에 몃번씩 연구회를 열어 자기비판을 하는한편 어학계의권위자를 초청하여 강연과 비판을 바라 『바른 조선말을 아름답게 들리도록』하기에 힘쓰려는것이다 그리고 한편부외방송자들의말에대해서도 조선어연구가로하여금 비판방송을 하게하여 조선말 『라디오』방송으로하여금 조선말의 최고표준이 될수잇도록 힘쓰려는것이다

時宜에得當

朝鮮語學會側 談

방송국이 조선말순화에 나아가려는데 대하여 조선말연구의

陽春小景

(昨日德壽宮所見)

校門을떠나는選手群 ③

氷上하키ー部는健在

蹴球의打擊未免

登山과乘馬部의猛躍期待

世醫專篇

다음으로는 世醫專의 運動部의 今春卒業生을 紹介하려한다 世醫專은 各運動部中에서 第一로 世醫專의 [illegible] 되는 것은 거 이와年 九州에遠征을하여서 優勝을하여온蹴球部로 장할 [illegible] 其他다른部에잇서서 는 蹴球、氷上하키ー、籠球部 등을 除하고는 別로 [illegible] 업서 [illegible] 上部、登山部、乘馬部等을 創設

하고 非常한活躍을 보이어주고 잇슴으로도 時日이 經過함을따라서 相當히 進步될것을 確信하며 同時에 우리스포ー츠界에 만흔 貢獻이잇 슬것을約束하게된다。世醫專에는 蹴球部를 비롯하여 蹴球、籠球、氷上하키ー、陸上、登山、乘馬、卓球等의八部가잇는데 今春에 校門을떠나는 卒業生이 各部를 通하여 十六名인데 그들의 卒業後의 動向狀態는다음과가다고한다。

◇蹴球部…同部는 가장긴 歷史를 가지고잇는데 벗수오로부터 約十餘年前에 다시 創設하면

全盛時代에 잇서서는 全日本高專蹴球選手權을 九州에서 專行하엿는데 그때에 敢然九州에 遠征을하여 優勝케 된 燦然한 歷史를

가지고 잇섯스나 約五年前에는 一時 沈滯된 狀態를 界하다가 三年前부터서는 漸次로 恢復하여 覇權을 掌握하게되므로부터 面目을一新하고 昨年度에는 京畿西醫育會主催인 專門部戰에 優勝을 獲得하게되고 朝鮮四醫專聯盟蹴球大會에서도 名譽의 優勝을하엿고 朝鮮神宮蹴球(專門部)大會에도 覇權을 得하엿섯 느니만치 同部의 活躍은 相當한 [illegible] 을 [illegible] 하엿다

보이어 [illegible] 이외가치 歷史 가잇는同部로 서는昨年度의 部員이十七名인데 今春에는 [illegible] 으로 重任을 다하고 HB級에서 重鎭으로 活躍하든 LH李[illegible]君 [illegible] 하여 L F孫[illegible] LI金[illegible] RW[illegible] 賢의四選手가 一齊히 校門을 [illegible]

나게되어 多少 [illegible] 全體로 보아서 [illegible] 이 全然히 업다고 [illegible] 할수는 업지만 同部의 [illegible] 이 만하잇스 [illegible] 다음 [illegible] 四人을 [illegible] 이 잇겟스며 [illegible] 을 [illegible] 다고한 다 先

[illegible] 進출의 [illegible] 同部의 今年度의 活躍도 相當히 期待할 [illegible] 된다。

◇庭球部…同部의 部員은 十二名으로 昨年度에는 全朝鮮高專生聯盟리ー그戰에 出征하여 第三位를 [illegible] 하엿는데 今春에 卒將이고 [illegible] 活動하든 [illegible] 을 비롯하여 [illegible]

威基昌의 三選手가 一時에 校門을 나서게되므로 影響이 크다고한다。過去에는 先輩들의 赫赫한 歷史를 [illegible] 아마 一時는 世醫專 庭球部라하면 누구나 잘알고잇 섯스나 最近에는 그다지 活動이 업서 沈滯狀態를 界하여 期待할만한 活躍을 보이어 주지안는 [illegible] 昨年度에 는 三年生金 [illegible] 中學校의 [illegible] 여 充實한 『팀』을 만드러서 四醫專리ー그戰과 專生聯盟리ー그 戰에 必勝을 期할 決定이라고한 다。

◇籠球部…昨年度에는 同部의 人員不足으로 큰困難을 바더 왓스나 開城에 遠征을하여 開城 社會[illegible] 勝利를하엿지만 卒業生聯盟籠球리ー그戰에는 所期의目的을 達成치못하엿는데 今春에 主將이요 RG인 尹玉龍君이 卒業하고 [illegible] 이 [illegible] 부진한 [illegible] 世專 [illegible] 的 [illegible] 實力으로

約四年前 同部創設當時에는 高專氷上하키ー 리ー그戰에 光榮의優勝을하여 氷上하키ー界에 [illegible] 名聲이잇드니 最近에와서는 學業의 時間關係인지 沈滯狀態를 界하여 期待할만한 活躍 을보이어 주지안는니 昨年度에는 部員九名이 精進한 活動으로 一心精力으로 努力하여 優勝은 못하엿스나 相當히 活躍中에잇 섯는데 今春에 主將인 崔永甫(F) 君이 校門을 떠나게되므로 多少의影響은 잇겟스나 『팀』全體로 보아서 그리 變動이 업느니만치 今 年度의 期待는 크다고 豫測케된다。

◇陸上部…同部는 비로서 昨年度에 創設되엇느니만치 成績은 그다지 보잘것이 업지만 今年度에는 從來의 三醫專陸上에 參加하여 今스ー즌부터서는 相當히 活躍할 것을 豫期하고잇다고한다。部員은 十二名인데 今春에 卒業하는 사람은 主將의 崔寅泰 (中距離)와 崔永甫(投砲丸、投槍) 兩君이어서 打擊은 클것이어다 고한다。

◇卓球部…同部의 部員은 六名인데 昨年度에 처음으로 創設되엇스나 [illegible]

◇乘馬部…同部는 只今으로부터 三年前에 創設되어 初年度 相當한 成績을 가지고 朝鮮中 등 全日本乘馬大會學生部 朝鮮 豫選에 第三位를 하여 優秀한 成績을 [illegible] 現在에 잇서서는 [illegible] 이 다만 [illegible] 朝鮮에 잇서서는 [illegible]

바라는것은 中等校의 卒業生이 만히 入部하여서 우리部의 將來의 發展에 對하여 만흔努力을하 여주면 아름답은 大部分 有望한 것으로 생각하고잇다고한다。

◇登山部…同部의 部員이 十五人으로 創設되기는 約四年 前인데 첫事業으로 金剛山、太白山 五[illegible] 山等을 中斷、智異山、太白山 하고 다음에는 [illegible] 三十日동안에 踏破 나되는 朝鮮의알프스 頭雲嶺과 長白山을 二十日間으로 踏 破하엿다한다。再昨年에는 狼林 山脈의 海拔二千六百米나되는 冠 帽峰을 二十日동안에 征服하고 昨年度에는 滿州爲滿嶺에가서 約二十餘日동안이나 『캠프』生活 을하고 滋味가津津한가운데 部 員一同이 歸京하엿다고한다。그 러데 同部의 創設者로 多大한 功 續이잇는사람은 主將인 尹玉龍 君이고 登山할때마다 『리ー드』格 이요 總指揮者는 崔永甫君인데 今春에 둘이다 校門을 떠나게 되며 其他 金東胄、許聖鎬兩君 도 卒業케되어서 同部로서는 큰 影響이잇다고한다。그러나 今年 에도 先輩들의 偉業을 記念삼 어 新部員들과 峻險한 山의 無 人地境의 踏破를 實現할 決心이 라고한다。

◇蹴球部=李判[illegible](LH)世醫專研究科進學 孫[illegible](LF)世醫專研究室 金[illegible](LI)平壤基督病院 諸光賢(RW)世醫專研究室

◇籠球部=[illegible](前衛)平壤[illegible]病院

◇庭球部=尹玉龍(RG)世醫專研究室 咸基昌(後衛)世醫專研究室 崔寅泰(後衛)就職未定

◇氷上部=崔永甫(FW)

◇陸上部=崔寅泰(中距離)就職未定 崔永甫(投砲丸、投槍)世醫專研究室

◇卓球部=[illegible] 金東胄 同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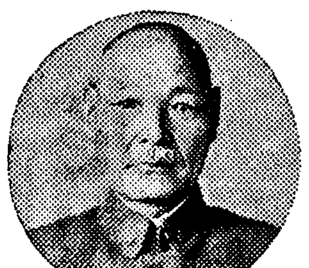
◇乘馬部=元容大 就職未定

◇登山部=尹玉龍 世醫專研究室 崔永甫 世醫專研究室 金東胄 就職未定 許聖鎬 世醫專研究室 (寫眞은 上으로부터 尹玉龍 李判[illegible] 崔永甫 [illegible] 孫[illegible]君)

冷靜한知識階層

率先하여愛國班에充實하라!

光輝잇는紀元節압두고 川島精動總裁談



정동조선연맹총재 천도(川島)대장은 황기이천육백년의 빗나는 기원절을 아페두고 팔일기자단과 회견하고 최근의 정동운동에 대하여 감상을 다음과가치발하 엿다

빗나는 기원이천육백년을 마지하여 팔굉일우(八紘一宇)의 정신이 점차스며들어 동아신 질서건설의 단계에이른이때에 살게된 우리들로서는 참으로 광영이라고생각지 안흘수업다 대외관계 국내문제 동 더욱

더욱 복잡다단한 이시국에 우리의 정동운동은 더한층강화하여 진전하지안흐면안된다고 하여 금에잇서서는 시국인식이 철저되어 정동운동을 남이나하 는일처럼 비판적태도로 나오 고잇는것은 참으로 유감된일 이다 우선자기부터가 솔선하 여 자기가소속한 애국반이나 연맹을 충실하게 발전시키것 을 사명으로하지안흐면안된다 이것은 서양식의 물질문명에 탐익한 지식계급 자들이일본정신을 몰 각한 결과로 그들로서 일본 정신이잇다면 솔선하여 인보상 조나거국일치로써 자기가소속 한애국반의 충실을 기할것 이다 이러케만 한다면 매 서 이나 매점이나 비밀거래니하

는따위가 생길리가 업다 어적 하할 이천육백년의 기원절을 아페두고 우리들은 일본정신 의 앙양이 절대로 필요하다 는것을 느끼는바이다

(사진은 천도총재)

"요것만은꼭지켜주서요"

電話交換手들이加入者에對한苦衷

靑松에痘患者

【靑松支局特電】 기보ー경북청송

온갖것이 다맛당치안흔 요즘 오늘의 [illegible] 대로되지안어 머리를앓고잇는 전화의 『써ー비스』만은 만점을 바다보련고 경성중앙전화국에서 전력을 다하고잇스나 원악인적 으로나 물적으로나 모든것이마 [illegible]

[illegible] 다 보이고잇스나 이를감당하고 잇는 교환수의수는 단지일백사 테 [illegible] 光化門)전화분국 가튼데는 가입자 사천삼백명으 로 하루의 통화도수(度數)는약 구십맹이요 더구나 이구십명중 에는 유개월미만이 유십명이나

羅南道立醫院

看護婦를養成

【咸北支社發】 도립나남의원에서 는 소화십오년도의신학기를 압두고 간호부양성소(看護婦養成所) 의생도이십명을모집하기도하여 엿다

札幌鐵道優勝

【高田에서同盟特派員發】 國體競技는午前十一時三十分鐵道局對抗競走、名古屋鐵道局을先頭로 廣島、仙臺、札幌、門司、大阪、東京、新潟의順序로出發을하엿는데 이때에吹雪로因하여 各選手의意氣는漸漸沮喪되고 다음으로는營林局對抗、信越局對抗、警防團對抗、靑年團府縣對抗、工場、鑛山 對抗等이 漸次로出發하엿는데 成績 은다음과가다

▲營林局對抗競走(出場八組)
1札幌(網野、關戶、井上、久慈、佐藤) 五六分一秒
2新潟 五八分四五
3東京 一時間四〇秒

▲營林局對抗(出場五組)
1秋田(扁川、村上、菅生、鈴木)五一分五七秒
2靑森 五三分四三秒
3樺太 五四分四四秒

▲遞信局對抗(出場七組)
1札幌(早川 大柳 鈴木 堀口佐藤)五三分四九秒
2樺太 五八分三九秒
3名古屋 一時間四九秒

▲靑年團府縣對抗(出場四組)
1山形(高橋 佐藤 片倉 堀邊)五八分五五秒
2新潟 一時間七分四九秒
3福井 一時二五分一五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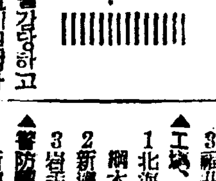
▲工場、鑛山從業員府縣對抗
1北海道(佐藤 西藤 石川 寬綱木)五三分〇九秒
2新潟 五三分五七秒
3岩手 五六分五六秒

▲警防團對抗競走(出場十七組)
1新潟(柳 小林 南雲)五四分五八秒
2北海道 五五分四三秒
3長野 五六分五八秒

靜岡大火災에慰問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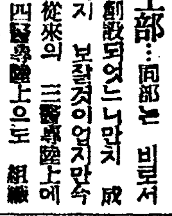
【本社[illegible]】 靜岡大火의 [illegible] 위문금을 [illegible] 각구장들은 [illegible] 경성부 [illegible] 재소에서 열린 지원병모집 [illegible] 한 현의회석상에서 정강(靜岡) 의큰불이야기를듯고 [illegible] 를 [illegible] 돈 십오원을 위문금으로보냇다

딱



열한번 징역이 좀 실증도안낫나、또 절도질、 ○ 사회가 강요 다 차다는 증거…? ○ 미곡관매는 밀경 경제적으로! ○ 진찰를 팔앗스면 서로 다면 해지。

映畫俳優志願者 手引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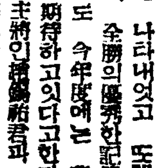


本書는日活、東寶、新興、松竹、大都等各撮影所의 [illegible] 映畫俳優 [illegible]

東京世田ケ谷區世田ケ谷四丁目 振替東京二七七八〇番 映畫俳優協會出版部

裸體美人寫眞集 浮世繪美人版畫集 [illegible] 東京市四谷區本村町廿九 [illegible]

廣告



▲二月九日(金曜日)陰一月二日▲干支壬午 ▲日出午前七時三十三分 ▲日入午後六時五分 ▲滿潮午前七時三四分 ▲日出午前七時三六分 ▲日入午後七時五〇分 ▲滿潮午前六時一五分 午後六時四〇分

에스 球

製法專賣特許 女性호르몬配合劑

대하중 월경통에

정당한약으로 하로바삐 부인병을 쫏처버립시다

요새와같이 치운시절에는 몸이냉해저서 아래배와허리가 몹시쓰리고 아푸면서 「대하」가 심하게되어 심한고통을 받으실쥴밋습니다 그러나이제부터는 그런고통을받지않고 기분좋은 그날〳〵을보내실수 있게되엇읍니다 즉「에스球」는新研究의特許製法으로만든 女性호르몬配合劑인만큼 지금까지의坐藥과는 조금그성능이달음으로 이것을 使用하시면 그약효는全部병근원에 흡수되어 치료의目的을完達할수잇기때문입니다

더구나本劑는從來의보통坐藥과는달너 누구시든지 自宅에서 남몰으게 간단히쓰실수있음으로 더욱 호평을 받고있읍니다

☆「대하」가심하시고 악취가나시는분・쓰리고아푸며 줌이자즈신분・부부화합에 자미를 모르시는분・아해를못배시는분・살결이거칠어지고잔주름이많으신분들께신효가있읍니다

【약가】 十五日分…一圓六十錢 卅二日分…三圓二十錢 五十日分…四圓八十錢

全道藥店에있음 無代進呈 신문명을記入하시고 표송료三錢切手를同封하여 京城新井藥房에 뭇지하시면조선문으로쓴위생지식서류와「新女性讀本」을진정

發賣元 東京 吉松仁平商店 朝鮮總代理店 株式會社 新井藥房 京城府南大門通二丁目 振替京城一一六番

S-16

中部版

水原青年團 新春月例會

【水原】수원청년단(水原靑年團)은 지난칠일하오칠시 수원소학교(水原小學校)강당에서 황기이천륙백년을맞는 지금에 제일회월례회를 개최하고 단장의훈화와 수원경찰서장의 세계정세에대한상식강연이 잇섯고 단가합창과 노래를 하고 이어서 국민체조와 함께 아래와가튼 식사(式辭)를 시식(試食)하고 그들의생활을 연상하며 기운을북돋우게하는 간담회도 하고 산회하니 하오십시경이엇다

陰曆설은먹자打令

잘팔니는食料品·布木雜貨는閑散一貫

舊正마지한老都開城各市場

【開城】음력정월을 불오지는비상시에 더욱이 한발까지심했스니 금년는 음력설기운도 확실히희박해질듯만 미더웟는데 정초를하로앞둔 고도(古都)개성의세태상가는 아연 활기를 띄워잇착백과 닭장여는 호경파 분망함을 볼으짓고 잇다 그러나각부문의 상점이 전부 그런것은아니니 그다는점을 한번 타진해보자

食料品市場

구력정월초를 앞두고 한목단단히보는것은 식료품시장인데 부내 양대시장중 북부남교(北橋)시장은 세찬감이 산가지 싸히기는 햇스나 고객의그림자는 희소하엿다 그바면남대문토파시장(南大門市場)은 아연 세말경기의 활황을보혀 고객의집합이 두절되다시피 고객의집합을 이루워고 외구료 녹구료 ―소리도 시장을 진동시켯다 따라서 설렁고기(牛肉類)등은 모다품절까지되어 돈을가지고도 살수업는 형편이엇섯는데 시장상인의매상고는 작년에 비하면배이상 올라가서 작년이때에는 하로삼사백원수입되던 상인이 금년에천원을 돌파햇다한다 이와가치 오래된 판잡은 좋지럼 버리지못한다 그러데이를고객중에는 작년만해도 개풍군농민들이 만헛섯스나 금년은 대부분이 개성부내주민이라한다 그원인은 첫째한발관계에도 잇겟지만 군당국에서는 식량절약 운동을강조한 때문이다

米穀方面

응당정초를 맞는 미곡가게에는 아주 석양배급조합의 완전한 결성을 못보아 쌀이 원활히돌지못하는 형편이므로 미곡상에서는 한말이상은 더안판다 그도소매상에서는 살수가업고 배급소에서 만활기때문에 각처에서 몰려드는 세민대중들은 문짝그대로 둘러치다 일루에서는 이가치 먹을식량을 사기에 전전긍긍하는반면에 지주측의 부녀들은 떡가루를 찌여가기에 제분(製粉)공장에서 되한야우성을 치고잇스니 이얼마나 히비(喜悲)를극한 삼부경이랴

布木고무靴商

전기식료품시장의 경기편과 달리 고무상과 양화상 포목상등은 한산하기가 짝이업시 구년말 경기라고일부조기와 부릇나위가업다 그중포목상은 사치품의 허가 매출이 한심하다 고보캣스나 예전에비교하면 이것세말경기라 할수업다 이것을보면 우선먹어야 산다는것이 통절하게 빈칫은에 키우친현상이다

(사진은 도교시장의 세모잡답광경)

말라부튼貯水洑

播種期압두고 큰걱정

農民들은벌써부터年事憂慮

【金浦】김포지방은 작년가물이 혹독하여 군내사십오개소의저수보(洑)에는 물한방울업다 그저수보에 파놋치 잇다 따중시기부터 그저수보의 물을 사용하여온 수원정보의 이앙해서 왓섯는데 지금현상으로는 이아무비가오지아니하면 여간해서는 저수를가망이업다하여 일반농민들은 벌써부터금년 년사를크게우려중에잇다한다

槐山에怪奇迷信

【槐山】전조선각처에퍼진천연두는 괴산군에도 침입되어 압박 주민들을 놀래게하는 이즈음에 촌놈들은 하고 이상한 유언비어가 나와 가어는사람의 엄으로말한 나와 는치는 말으업다 오늘날 가 는 결코 전염되지안는다고한다 는 천연두에 안걸린다는 미신으로 아이를 입혀 처량한 ...

平北經警課新設

六日付로正式認可

【平北支社發】평북경찰부의 경제경찰은 그동안 총독부에서 설치청중이던중 얼마전도 드디어 정식 인가가 나왓스므로 신의주에 인 경제경찰과를 설치하고 반순비를하고잇는데 정원은 과장이하 기구를정비하고 사무를 착수하엿다 그리하여 이로써 평북경찰부는 종래의경무 고등경찰 보안 위생외에 경제경찰과가 신설되어 다섯째로 사무가분장되는 인데 경제경찰과의 본과사무는 제경찰 에 관한 것 자동차 ... 석유 ... 등을 분담하게 될것이고 인원은 경부 ... 수학명 순사열한명 ... 원한명으로 ... 키로되엇다

棉花全北의貫錄

昨年總收千萬斤 七割이共販

【全北支社發】소화십사년도전라북도 면화의 공동판매는 벌서 작년말로 공판소가 폐쇄되엇는데 작년도의 면작은 한해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성적은 좋와 실수로 ... 각군별수량은 다음과갓다

▲完州一、五二六、二四〇斤▲錦山九二八、〇二七▲茂朱三〇六、二五▲長水一九四、八八五▲任實八八八、一〇〇▲南原一、四〇〇、〇七二▲淳昌一、三九〇、二七六▲井邑一、四六八、九八八▲高敞一、四七〇、〇〇〇▲扶安六八九、九二三▲金堤二六六、〇六八▲益山一七六、七四二▲群山一、三二四、七二〇

零下十八度

長項地方의酷寒

【長項】지난달 중순부터 계속되는 추위로 지방의 추위는 지금까지 의연계속되고 거기다 눈까지 쌓여 각처상수도에 고장이빈발되고 가지 지장을 주고 있는이 대지나설하여 도일이나 되엇는데 이기온은 근년 신기록을 보여주고 잇다하며 농가에서는 맥작피해에 적지아니 걱정하고 잇다한다.

農業校設置計畫

鐵城서期成會組織

【鐵原】평남철원지방에서는 오래전부터 농업학교의 필요를 절실히 느끼고 어오던중 국민의 상당한 지식을 얻는 나가고잇던바 원산에도 평양에도 불구하고 교육상 군사상 중요한 교가없이 ... 아래와같다

會長 李公厚 副會長 張麟 … 幹事 … 元鳳淳 金鍾熙 金鍾寶 … 外五人

京畿道警察部 異動辭令 (八日付)

命水原警察署勤務 … 公
命警察部 … 三輪 … 太郎
補 … 安城同 田邊 信治
命開城警察署勤務 竹端 伊數
高陽同 曾根 嘉吉
補開城警察署長 通澤 … 三郎
補平澤警察署長 平山 …
補加平警察署長 小坂 傳
補長湍警察署長
補漣川警察署長 岡村 寬暢
命永登浦警察部補
任警部
命龍山警察部補 松岡 …
命警察部 高等警察課勤務
任警部
補長湍警察署長 草野竹次郎
命本町警察署勤務 鎌倉 七郎
命警察部高等警察課勤務 東大門同 角 謙介
命永登浦警察署勤務 金浦同 伴 俊
命本町警察署勤務 保安同 桑名 酒忠
命仁川警察署勤務 本町同 橘田 秀春
命警察部經濟警察課勤務 水原同 吉岡定次郎
命鍾路警察署勤務 廣州同 冲 經隆
命永登浦警察署勤務 水原同 吉岡 定次郎
命鍾路警察署勤務 廣州同 冲 經隆
命警察部經濟警察課勤務 抱川同 吉良 虎
命警察部經濟警察課勤務 龍山同 樋園 辭美
命警察部經濟警察課勤務 平澤同 中川 寶次
命警察部經濟警察課勤務 楊州同 村上 一字
命警察部保安課勤務 鍾路同 青木 乘誠
命警察部高等警察課勤務 本町同 山崎 伯己
命警察部外事警察課勤務 仁川同 柴山 幸吉
命龍山警察署勤務 鍾路巡査 石井惣太郎
任警部補、命楊州警察署勤務 長湍同 佐藤 良吉
任警部補、命開城警察署勤務 永登浦同 河野 正治
任警部補、命廣州警察署勤務 楊州同 藤崎 秀次
任警部補、命警察部保安課勤務 抱川同 武智 義一
任警部補、命平澤警察署勤務 開城同 本多 三郎
任警部補、命京城鍾路警察署勤務 本町同 吉良龍四郎
任警部補、命京城龍山警察署勤務 外事同 栗地 時雄
任警部補、命京城本町警察署勤務 鍾路同 谷本 義國
任警部補、命警察部刑事課勤務 刑事巡査 山田 小一
任警部補、命京城東大門警察署勤務 外事同 齊藤 高實
任警部補、命龍仁警察署勤務 仁川同 武智 春蔵
任警部補、命金浦警察署勤務 開城同 朝長 一男
一月十二日附依願免本官 保安警部 … 幹雄

府의買收價格에

仁川鶴翼町住民反對

時價는坪에廿圓以上을三圓內外로交涉

【仁川】도시계획령에따라서 인천부에서는 부내 학익정(鶴翼町)에 작년부터 시가지구성정리사업을진행중이나 그곳의 주민들은 일단공장지대를 조성한다고 부에서 땅을헐깨로 사드려주민에게는 적지안흔손해를 보이고잇다 또 주택지를만든다고 전주민들의 소유인땅을 현까이 십원이넘는것을 단돈 일원오전에 부에매각하라는 무지를 바든 주민들은 극도로분개하여 지난팔일에 그곳주민중에서 대표로 십여명을뽑아서 인천부윤에게 진정을하고 현재의 땅갑으로도 잘팔지안흔것을 십여전의 땅갑이라는것은 가혹하다는한편 나 조사중이다 이때에 사회인 진정을 하엿다는바 부당국에서는 이문제를 어떠케 재단할른지 일반의주목이 크다고한다 각자는상조의정신을발휘하여 식량부족을 극복하기바란다고한다

私藏米를嚴調

食糧緩和圖謀

【水原】인구삼만인을 포용한수원읍은 작년미증유의 한해로인하여 각가지로 식량대책에 노력하고잇다 현재는 쌀이외에보리가다다부족상태를 적극 장려하나 그것조차 넉넉지못함으로오 … 자일정부터는 경제경찰과 군청(郡廳)의 협력하에 필수품의구매(必需品購買)공장(?)의 … 사업 … 할이엇마나잇

成績조흔殖産稧

金浦郡에서더욱奬勵

【金浦】김포금융조합(金浦金融組合)에서는 도의방침에순응하여 소화십일년도부터 여차게회오로 각부락에다가 식산계(殖産契)를 설치하고 생산품판매(生産品販賣)필수품의구매(必需品購買)공동시설(共同施設)사업지도(産業指導)등공제사업(共濟事業)등에 노력한결과 현저한 조흔성적을보게되엇다 지금까지설치된 식산계는 오십팔개소나되고 계원은 일천칠백여명에 달하엿다한다 그리고 이아프로 부락적식산계를 설치케하는동시에 한층더조흔성적을내기위하여 지난 오일부터 칠일까지 삼일간 군청회의실에서 소천리사(小川理事)사회로군농회산업계원등 다수참집하에 각식산계 간부오십여명에게 대하여 강습회를개최하엿섯다

"등겨"에石灰석고

斤量詐欺로暴利

仁川署經警에서摘發

【仁川】경성부평동정(平洞町)십오번지 부전상회(富田商會)주인 오세의(吳世毅)는 『등겨』 오백가마니를 내지로보내려고 인천부해안정(海岸町)삼정목 일번지유석옥(裕錫玉)를 시켜서 매수토록부탁하엿다 이에유석오는 부락마든등겨 오백가마니에 석회(石灰)일백오십가마니를 섞거서 내지로보내고 나머지 일백오십가마니의 등겨를 다른곳에팔려다가 인천서 경제경찰계에발각되어 지난팔일에는 전기유를소환하여대촌(大村)경제주임이 직접취조를개시하엿다

半生을鐵窓에 또다시警察에

【仁川】절도전과칠범에 강오생 … 활 이십이년이나하고 여덟번째에는 순사집에 침입하엿던 근대히유의 도적이 인천서에 걸렷다―인천부송현정(松峴町)에본적을둔오상근(吳相根)(?)는 대정팔년팔월십일에 절도죄로 서대문형무소에 들어갓다가 그후게속하여 여섯번이나 감옥에들어간것이 이십년이나하고 작년십일월에 서대문형무서를나와서 인천부내에도라다니다가 지난칠일밤에는 부내화정(花町)일정목에잇는 인천서순사의 집에침입하엿다가 때마침구변말 특별경계의순사에 들켜서 체포되어 목하엄중취조중이다

開城産果物을檢査

四等級制를實施

聲價의昂騰을目標로

【開城】개성의 파수재배는 근년 대단히 팽창하여 연산액 일백이십만원을 산하는 현상인바 금번개성부와 개풍군관내의 재배업자들은 판매통제를 기하고재배에일층 개선을 도모해서 개성명산의 우량과실을 다량생산하자는 취지로 파물동업조합(果物同業組合)을 조직하고 전번정식으로 총독부인가까지 엇게되엇다한다 따러서 금후시장에 나가는 생산품은 개성과물의 성가를 노피하기위하여 전기조합에서 전부검사를시행키로되어 파물을담은 상자는물론 낫개로 파는 파실에도 검사표가붓기로 되엇다한다 그런데검사의 등급인(印)은 다음과갓다하며 검사표가 붓지안흔것은 등외품이니 일반은 이점을주의해서 사수기를바란다고한다

等級別票印

▲特等品 [illegible] ▲一等品 [illegible] ▲二等品 [illegible] ▲三等品 [illegible]

不良學生清掃工作

撞球場·映畫館·카페―빠에出入者를團束

仁川署에서今後嚴罰方針

【仁川】인천부내에잇는 아홉군데의동구장에도 요즘중등학교생도들이 몰려드러 일반의풍기상가장자미롭지못한 일이 적지안타 그중에도 심한생도들은 책보를낀채로 동구장에 드러와서 정모정복에 담배까지 피워물고 『큐』 보는 여자들에게 농담까지해가며 유히를한다하여 인천서에는 매일가치 투서가드러옴으로 인천서고등계에서는 그들을 이대로두어서는 중학생풍기가 점점 문란해지리라 하여지난팔일아침에는 회산(檜山)고등계주임이 계원을 독려하여 학생들이 동구장이나 『빠―』 『카페』 활동사진관등에 출입하는것을 엄중히조사하여 오는족족 도적국적으로 취체를한 후불량학생은 근절을시키도록지시를하엿다 그리고 보안계에서는 동구장주인이 생도들의출입을묵과할때에는 영업정지까지를 하려고 각파출소에 통첩을하리라한다

新舊年末拘檢者

仁川署서多數釋放

【仁川】신구연말의 특별경계에 인천서에검거된사람은 얼마나되나? 지난팔일오전에 인천서사법계에서 조사한바에의하면 신구연말경계에 붓잡힌자는 수상하여 유치시킨수가 일천사십구명으로 그중에 절도가오십이명강도가네명 종전과자가 칠십여명 그외에는모두 불량배이엇다 그중에는 대부분은 석방시키고 남어지는 범죄구성이되어 취조중에잇다

十年以上勤續者와 成績優良者表彰

水原支廳管內에서

【水原】기보와가치 지난칠일오전십시 수원신풍소학교(水原新豐小學校)강당에서 경성지방법원 수원지청관내 용인 인천 여주 안성 평택 음죽 면장(邑、面長)과 호적계 당사자등 일백오십여명의 호적사무협의회를 개최한바 협의회장수원정(梅原靜雄)씨의 개회사를 비롯하여 별무에 십주년근속과 성적우량자 표창을 거행하고 호적령 개정에의한제일협의회 사무를 진행하엿다 한다 그런데 표창자의 씨명은 아래와갓다

利川、利川邑書記 李容觀
安城、金光面書記 梁孝成
(以上은十年以上勤續及成績優良者)
水原、日旺面書記 尹榮館
水原、飛鳳面書記 李鳳求
利川、夢加面書記 權應倬
利川、利川邑書記 李起鶴
安城、安城邑書記 金德仁
安城、一竹面書記 李容飯
安城、一竹面書記 李丙穀
安城、二竹面書記 李泰榮
(以上六人은成績優良表彰人)

巡回防諜展

大田서도開催

【忠南支社發】충남도의 방공협회(防空協會)의 순회방공전람회(巡回防諜展)는 대전서도 개최키로 결정되어 오는이십일일부터 일(?)일간 부내 삼중정(三中井)에서개최할려이다

叺價引上도挫折

九·一八物價令으로當局서不許

全南產業會社焦燥中

【全南支社發】전남은 타도에비하여 가마니생산량이 만허 각도에 가마니통제회사가 설립된후에도 전남도에 배당된가마니생산량은 전조선제일위에 잇서 전시하에 가마니소비는 더욱만허젓스므로 전남산가마니가 일층중요성을 띄게되엇다 소화십오년도 전조선의 가마니생산량목표는 칠천삼백구십구만매인데 전남도 배당수량은 팔백팔십사만매로 당국에서 여러가지로 장려하고잇스나 가마니가격인상을 가마니생산수량은 겨우 십삼만매로 전번동기에비하여 감소로 『퍼센트』 에 불과하고잇다한다 기보하엿거니와 그와가치 가마니가 농한기(農閑期)에도 불구하고 생산이업는 작년의한재로인하여 원료(?)가업서 짚(?)이 시 몃배나올른데다 가마니 가격은 통제규정에 의하여 동부에서 일정가격이 현재곡용사두입(?)… 조흔 천위(天位)가 한매에이십팔전이리 다음가는 지위(地位)가 이십삼전 다음 인위(人位)가 십이전팔리 비등한 가(?)… 구전오리로부터 동전에…(?) 회사에 매도되고잇는데 금후더욱 산출할것이라하여 총제회사인 전남산업주식회사(全南產業株式會社)에서는 가마니매입가격을 올리려고 당국과 협의하엿스나 구·일팔(九·一八)물가정지령에 의하여 가마니가격인상을하는 것은 인정안키로된다 회사측에서도 가마니생산장려의 소극적이나마 선전비용(?)도 각종에 『포스―』 란와 선전의 식품등을 배포하여 대대적으로선전을하게된다 하지만은 큰효과는 업스리라고본다

槐山에毒感猖獗

一般은二重으로苦痛

【槐山】괴산지방에는 원래 한기가불규칙하여 급하게 온몸에 열이 나고 일반은 더욱이상하여 대개집집마다 환자가업는집이 업스므로 매우걱정중이라고한다

世界最上의强壯劑로

確實한二證據

一、勿驚、三千餘通의感謝狀

獨身生活 十年만에 更取妻하엿다、二十年斷產하엿다가 生產하엿다。病院에서 버림밧고 會社에서 休職當하엿던몸이 百補丸쓰고 元氣回復更就職하야 大活動中等의感謝狀이 勿驚三千餘通에 達하야 每月曜日公開하오니(와보와주시요)

二、京城、四大郵便局의小包數第一

每日山가치 引受하난 京城四大郵便局의 小包數中에서 百補丸小包가 每日最多數이니 果然天下名藥이요 世界最上의 强壯劑라는 確實한證據가됩니다 (의심나면調査하여보시요)

健康이勝於百萬金

다가치百補丸을쓰자!

(食事倍加)(湯氣倍加)(活動力倍加)

●政治도商業도健康해야成功
●中學校入學試驗도 첫재身體가 健康해야入學을許可하게되여스니

百事에一人分을當케되는 百補丸을 다가치쓰자

●몸이弱하면 百事에失敗
●虛弱이過度하면 百藥이無効하니
●根本的으로 壯筋骨補氣血하고 百病을退治하난 百補丸을 다가치쓰자

●新年선사품添呈

百補丸會社製의 蔘茸靈神丸은 朝鮮製藥界第一조흔特上品입니다 實物的으로紹介하기爲하여百補丸注文하시는분에게 一圓자리一瓶式無料進呈하기로하엿사오니(但限五日分)百補藥書로 百補丸을注文하시면서要左便에 上記無料券을切取貼付하여보내시면 一圓瓶을無料進呈하겟슴니다

朝鮮日報 [illegible]

一年之計는在於春이니 爲先百補丸으로몸補부터

자랑하는百補丸의効力

一、氣血이供給하여 貧血이되고 形容이창백하고全身이衰弱한분
二、性慾이쇠고 手足과下초가濕冷하고 肢節腰痛으로 고생하는분
三、口味가업고 消化不良과체증병으로고생하는분
四、肺가弱하여 元氣와 精氣가업고 허리가아프고 四肢가勞困한분
五、神經이 衰弱하여 머리가 무겁고 精神이흐리고記憶力이不足한분
以上의病勢는 早老衰症狀이요 長壽못할前兆이오니 一日速히百補丸을 服用하여 씩씩한壽이되시요
六、筋骨이 튼튼하여지고 氣血이旺盛하여지고 힘이 생기고 順便力이됩니다
七、消化不良、체증、속병가 좋아지어는데어서 것든지 알지도못하게업서집니다
八、눈이밝아지고 精神이조와지고 皮膚가 윤택하여지고血色이조와집니다
九、全身 五상六부를 다强健하며 잔병은完全히 根治합니다
十、陽氣補하여 精氣가滋生되고 陽氣가大旺됩니다
十一、過食過色 ホルモン不足으로因인 病及性神經衰弱人에게 더욱效驗잇습니다
十二、長久服用하면 精力이增加되어 一生無病長壽、年久服으로 不老長壽할수잇습니다

藥價
百補丸一劑 十圓
婦人百補丸一劑 七圓
少年百補丸一劑 五圓
◇
三劑以上 어는것이나

無料進呈
共同注文하시면 周旋人에게一劑無料添呈

世界的代表名藥
百補丸
婦人百補丸

京城堅志町一五一 平和堂株式會社ビル 百補丸販賣部 電話光化門 六二三二番 振替京城二六五五番

長篇小說

사랑의 水族館 【143】

金南天 作 / 鄭玄雄 畫

氣質의風土記(三)

추운 겨울의 한 고비를 온전의 『호텔』에서 보낸다는 것은 유쾌로운 일임에 틀림업섯다.

이경히는 일체의 잡념을 멀어 버리고 책이나 읽으며 정신의 안정을 꾀하려 하엿다. 그만것이 무엇이랴! 김광호에게 모욕을 당햇다는 것, 강현순에게서 배신을 당하엿다는것, 한평생 지내일 긴 생애에 비하면 하나의 적은 물거품이 아니냐. — 이러케 제 마음을 넓게 가지려고 애써 본다. 모든것을 잊어 버리고 새로운 마음의 용이와 신념을 가지고 학아소의 섭지에나 전념하리라, 김광호도 갈테로 가거라, 강현순이도 가고 시푼데로 업서저 버려라, 내호자, 혼신의 정력을 다하여 나는 내의 이상에 매진할뿐이다 — 그러나 책을 읽다가도 문뜩 문뜩 광호의 생각이 머리에떠

올럿다. —그는 어째서 또 공교롭게 이러한때에 멀리 만주로 다려나게 되엇는가. —지금쯤 집에는 그의 편지가 와 잇슬는지도 몰을것을 —그는 아직도 내의 병에 대해서 소식을 기다리고 잇슬까?

『언니 무얼 그리 생각하누?』

덕히는 책상에서 커다란 『단젠』을 입고 글을 읽다가 멍청하니 의자에 안자서 『베란다』의 창문을 바라보며 글속에서 눈을 떼고 안잣는 경히에게 그러케 말을 건는다.

깜짝 놀란듯이 나출 돌리며 『책속에 씨인게 무슨 소린지 몰라서 생각해 본누라구 그런단』 하고 가볍게 웃어 보인다. 그리고는 다시 책경우으로 눈을 옮기는 것이나 마치 한번 허락하엿던 얼굴에서 김광호의 흔적을 뜨더 버리기나 하려는듯이, 이빨로 아래 입술을 몃번인가 빨고 빨고 하엿다. 그리다가는 다시 눈아페 어지럽고 추잡한 환영이 얼른거리는지

『덕히야 탕에 가자』 하고 책을 접어 놋는것이다. 수건을 들고 덕히를 이르켜 세우면,

『신경통에 걸렷다. 하루에 다섯번 여섯번씩 남이 보면는 갈 다라히 한다구 흉 보겟수.』 하고 의아스레 생각하는 덕히

의 한팔을 연구리에 꼭 껴보 동한다.

덕히는 게하이 감하다고 닷새만에 서울로 몬저 가야만하겟다.

『언니 안 갈래?』

『난 좀 잇다 가겟다. 집에가야 흥이만 하구 난 여기서 책이나 보다가 가겟다. 가건 언니나 보내랴.』

정거장에서 차가 떠날때에 『무사히 잘 가』 이내 편지해란 하고 경히는 라일택다. 물론 오렌히를 『프랫폼』의 인사엿스나 서울 소식이 궁금지 안흔것은 아니엇다. 그런므로 이틀만에 온덕히의 편지를 밧고 —

『만주국 길림성에서 편지가 온것이 한장잇고는 저접에서 온 책망고뭉수, 그밧겐 아무것도 업습니다. 편지는 그리로 회송을 시킬까 하엿스나 인제 새언니가는편에 보내려구 그대루 보관해 두엇슴.』 하고 씨인 서그대목을 읽으면

는 저윽히 서운하엿다.

『편지를 이내 보내지 어째 그러케 묵혀 둣담!』

그는 이러케 속으로 뇌까렷스나, 이내 다시 이러케 생각한다.

(그까짓 편지가튼게 인제 무슨 소용인가.)

그래서 다시 수건을 들고탕으로 가서, 마침 아무도 업는것을 다행으로 두손으로 푸르게 『타일』이 비치는 맑은 물을 두들고 뚱그치고 끼언고하면서 실컷 뉴푸리를 하엿다. 한참동안 그러케 작난을 치며 가슴이 다소 후련해 지는것가타서 가만히 가슴을 가리고 물속에 누어 본다.

『나는 나대로 간다.』

『나는 나의 길이 잇다.』

『나에게는 갈수잇는 내가 가야 하고 또 나만이 갈수잇는 길이잇다.』

『아무도 방해하지는 못한다. 감정이 무시되고 실련이 무시되어도 이길을 것는것 만이 가장 온당하다.』

『이것이 이경히의 생활 정신이다. 처녀의 새로운 생활신념이다.』

그러케 빨간 입술로 뭇소리고 잇는것이다.

그러커고 사흘만에 올캐가 왓다.

『양장점 김현숙이 한테서 화가 한번 와달라구 이거 편지가 두장!』

올캐가 던지는 편지를 들고 경히는 또다시 사흠이 뛰는것을 느끼지 안을순 업섯다.

演劇映畫

金仙草氏와버개에기

복혜숙씨는서광제(徐光霽)씨는 동경으로 떠나서 혼자살림이 빈 집을 지키고 잇는 아랑(阿娘)의 김선초(金仙草)씨 —그러케 보아서 그러치 는물라도 현안인지 요즘에는 우울하신동 더구나 이분에게 여지껏 얘기가 업는것이 덜 어려운 말— 그러데 얼마전에(얼마전이란야 이틀전이지만) 제일극장 무대에 얘기를 업고 등장한일이잇다. 그러나 이 얘기가정말 얘기가 아니라 인형이어서 정무로 돌리어도 다행일러가 업는것은 조롱다. 송어새하게 보이는것이 흠이엇다

『좀 그럴싸하게 업운』 하고 한분이 처 등에다 업허주니까 선초씨 단번에 속 업고 전의를 뒤 두르고나니영 낙업는 애기엄마다

『어쩌면 꼭 정말 애기가타』 하고들 놀려엇스나 사실 멋해전에 씨가 애기를 나혓다가 이저버린것은 몰르는 모양 인제 기뿐 소식이 들릴도 머지안헛을 것이다—

洪淸子孃O·K!

【오-케-】에 새로 나타난 아리따운 『멕씨-』 한분 — 이 아가씨가 바로 홍청자(洪淸子)양이다.

홍청자양이라고해서 잘 모른다면 한국안 동경 대판등지로 이름을 놀리고 다니던 배구자(裵龜子)씨의 악극단(樂劇團)을 연상하면 된다.

청자양은 이 『배구자악극단』의 『스타-』엿다. 그는노래도 잘 부르지만 더욱 춤을 잘 춘다. 그리고 국어를 잘한다. 국어만 아니라 국어로 연극도 잘한다. 한동안자취를 감추어서 궁금케 하던 청자양이 다시금 나타낫스니 조선악극단도 아르도 엄마를 향기를 떠게될것은 사실.

"戀愛物이너무만타"
內務省映畫業者警告

사변발발이래 각영화회사는압흥다투어『다섯의 척후병(斥候兵)』『상해육전대』『노영(露營)의노래』등 수만흔 군사물을비롯해서 일반작품도 국책선상에 보조를 마추어 시국을 기피깨닷고인식하도록하는 동시에 성전(聖戰)수행에 대하여 국민의 사기를 고취하기에 노력하엿스나요즘에 이르러 사변도 점차 본격적 장기전으로 들어가자일반영화의 내용도 점점처하되어 가는경향에 빠저서 어느때는시국에 배치되는 경향의 작품까지도 나타 낫스므로 내무성(內務省)에서는 근일중으로 일반업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맹성을구하게 되엇다고한다.

내무성의 희망으로서는 영화법(映畫法)제일조의 『국민문화의 진전에 관한것이기 때문에 영화의 질적향상을 촉진하고 영화사업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한다』 이가튼 항목을 기준으로 하고 잇는만큼 일층자중하여 지도적 정신을 가지고 국민정신 작흥 촉진에 노력하여 주기를 바란다는데 잇다한다.

여기에는 최근에 점점증가되고 잇는 연애물을 고려해서 개인적인내용보다 건전한 사판에 입각한 내용과 또한 황기이천 유백년을 마지해서 국체의존엄을 강조하여 비상시 일본의현상을 일층 정확하게 인식시키어 국민문화의 진전에 도움이 되도록 극력 노력할것으로서당국으로서는 군사영화만에 구속을 밧지말고 전반적작품의 내용에대하여 신중한 지시가 포함되어 잇는것이라고한다

戰時의巴里風景 二題

【巴里發同盟】 전생이 일어나 자동시에 사치와 유행의 서울『파리-』에도 여러가지 이상한풍경이 출현되고 잇는바 그의 한둘을 소개하면—

『파리-』 미술학교는 『씨-즌』마다 대략 일천오백명의 학생을 수용하여오던것이엇스나 금번은 전쟁으로 인해서 지원자가 무척 줄어서 지난 십이월십일 현재의 재학생은 이백명으로서 그것도 대부분은 십팔세로부터 삼십세에이르기까지의 부인층이라한다.

『파리-』의 명물인 미술학도의 그림자도 전쟁으로 인해서 거리에서 사러진 셈이다.

×……×

이 미술학도와 판계잇는것은 아니지마는 전쟁이 일어나자 『파리-』에는 범죄인이 무척줄어저서 지금은 완연히 범죄업는도시가되엇다. 『파리-』경시청 당국의 발표에의할것가트면 지난 구월조순부터 십이월십일에 이르기까지 약 석달동안 범죄의수가 평시에 구십칠『퍼-센트』는 감소되엇다한다.

이진기한 현상은 전생에의해서 거의 천명의 대부분이 전선으로 나간결과 범죄를저즈를만한자가 전부 전쟁으로 떠나간 때문이나 아닐까……당국은 이가치 생각한다고.

※ + ※ + ※ ◆ + ※ +

銀幕一千一夜話

"女型俳優"엿기때문에 수염이적은安鍾和氏

이, 안씨는 지도 산(金剛山)일행에서 여형(女型)배우로노랑목소리를 빼여 서관객의 간장을근지럽게하던이로영화에『더 마이메』로는매우 풍족하도록 적어 젓다.

손길이 부가를로 씻는다시 지금도 뽑지만 여형배우 시대로부터의 그세련된 손짓으이 글도 친구들의 시선을끼는터노 오퀘만에 만나손을잡엇을때 벌의말을 부드럽게 하나니 이고호호길어그로 하여곰 엉사(艶史)를장만하게 햇슬것이다.

누구한사람이나 안씨의 입속 비밀을 드른적이 잇섯는가 그러나 세상이란말은 사람이 모혀사는곳이라함이 의 주재인민중극단(民衆劇團)에 새로출드럿다. 여기에 역시 안씨가 『디마이메로』이월화를 상대역으로부터에서 그 분풍비일흘에자질구레-하고도 상긋하게바요 사람들의 너세울수업은 안씨의 얼이라서 모를리업다.

부산『조선키네마』에서서울로온뒤로 역시 유백남씨한 너물비내며 웃음을 먹음엇슬때 이때로부터 안씨의인끼가오르기시작하엿다.

애써 남의비밀을 들쳐거릴것도업고 도에써 지나간자기의일을 너무숨길것도 업것스나 배우중에 안씨만콤 지조를지켜온이는 드물것이니 어데자들의 말이 여기서 더틀라고 안씨의 미모가더욱 꽂다워지는것이다.

한두가지만 꼭 어야기하기를 주저치안는다면……

때는 봄이엇슬것이니 안씨가 길로 하-얀 두루막이에 까만 모자를쓰고 참 『오나가닷(女型)』격인 걸움거리로 길을 거를때 안씨의 두루마기 자락을 더즈시 끄러집어다니는것이잇섯다.

필연코 볼비람이 힘란하는것이라 치고서 짓짓 도라보앗슬때는 눈이 어쾌하게생긴 한청년인이 항바가지 옷고서닷.

『누구시요?』

『저를 모르시겟서요?』

『모르겟는데요』

『괜히 그리셔. 잘아시면서두—』

『여자라는건 알지만요』

『그러면됏죠.』

『그러키두 하군요』

이러구보면 신면이 아니라 구면이나 다름업서 그들은 걸음이 내키는대로 걸어서 왕십리길을 들어서자 『안정사』라는 절에 가서 점밥을 자시고나니 백년을 가치살것갓고 천년의 꿈을 가치꾼것가태서 해가서들어 새들도 제보금자리를 차저 가는데 이들은 달이 중천에 노피소삿슬때에야 그림자의 신비스러운 작히(作戱)를 구버보면서 서울장안으로 들어서서는 종로 네거리에서 헤여진게 지금도 다시 만날수업는 수수꺽끼가튼 봄밤의 희롱을 바든것이다.

또한가지 이것은 풍문(風聞)인것가탓스나 어느 내지인 여자로 열천에 내가 어느 곳에서 언듯 보앗지만 지금도 드물게보는가인(佳人)으로 이여자가 열여덟살때부터 이 안씨를 못내 편모(片慕)이엇단말을 들엇고 또 헤어지는날 안씨가 그 의장내를 위하여 준절이꾸지젓다는말이 잇스나 하-도 안씨가 싹고숨기고 하니 여기에대해서는 더말할 기운이 나지안치만 안씨와 나와 어느 술집을 단한번 갓섯는데 얼마후에 내가그 집을 차젓슬때는 그어여뿐 주모(酒母)가 『안선생과 어째 가치오지 안으섯서요』하며 나를 꾸짓듯 비죽거리는 입술을보니 금방 울음이 터질것가태서

『그러지. 내요다음에는 꼭 모시고 올께 안주나 맛난것을주게—』

이래서 내가 그 약속을 지키느라고 안씨를 압장세우고 갓슬때는 그여자는업고 명상스러운 곰보아가씨가 술청에 안젓기에 저윽이 미안하엿다.

푸룰로-그 ②

文·畫 安夕影

柊林의流行 ①

남편으로부터 얻어나게 된 이런 옷을입고 등장하엿답니다 (?) 『노-마·샤-라-』는 ...

連續野談 遐方賤妓 ③

申鼎言

심홍각이 금한 거롱으로 집에 들어갓다. 비를 들어 대문바과 틀을정히쓸고 방안에 한로로 엽허저 잇는 책을 바루 차며 캐캐로 앉진 몬지를 떨어내놓룰에서 바탐이 나도록 쓰레질을바뿌게하엿다.

그리고 다시 세수를 정히하고 새옷을 내입엇다.

집안 사람들은 무슨 까닭인지 아지못하여

『자-。웬 일인가 무슨 변덕이 생기엇지。』

하며 서로서로 수군대는 소리가 이구석 저구석에서 흘러나왓다.

심홍각은 몸단장과 쓰레질을 정히 마친뒤에 대문박게 나서서 서편길을 향하여 눈이빠지도록 바라 보고 서잇섯다.

해는 벌서 금화산(金華山) 마루테에서 넘늘거리고 잠새는 나뭇기 시작하엿다。

심홍각이 서편길을 눈이빠지도록 바라보앗스나 일라홍의 자최는 까마득히 보이지아니하고 헤-스비만해서 저물어 갈으로

『허허, 일라홍이 나를 살뜰 따돌려 세엇구나。 노류장화의어와은 모두 허문자작이란말이 이러케두을 두고 일은 말이로구나。』

하며 일라홍에게 속은 앙가품을 하기를 생각하엿다。

그러데 일라홍은 별일업하고 진흔사를 떠나 돌아오는 길에 잠간 집에 들러서 수수한 복색으로 회류계의 여자인 태도를 감추엇다。

그러나 춘홍에 흐트리인는 수양버들가지와 가치 나근나근한 맵시며 죽실(竹實)을찾는 봉황(鳳凰)의 거룸과 가치 치적 제여서 내드디는 거름새는 아무래도 노류장화의 지를 지엇다할지라도 오래오래 아주저진 그 윤득분면의 흔적이야 어찌 일시에 가실길이 잇스랴。

때인것을 감추기에 바이 업섯다。

어름에 꽃도 잣고 탈도가 른 그물로는 버드 보고 연 섯다.

일라홍이 소안동골목을 돌어서 이리 저리 돌다가 심홍각의집여패 이르러 마침지 그러므로 일라홍이 지내는 하마다 가는사람의 거룸만 추고 엇던지 그대로두 탈 어디보지 아니하는 사람이업 내가는 노파에게 오반에 구술을 굴리는듯이솔리엿다.

『어보서요 여기 심홍지댁이 어느댁인가요。』

하고 곳는 여낭한 목소리가

그로파는 일라홍의 못는말에 고개를 돌이여 일라

홍을 바라보며

『나두 어둡데 살지 아니한 오로 알수 업소이다。 그런데 뉘댁 아씨신데 저미게 꼬 처음을 봅니다。』

하며 역시 갈는 거룸을 멈추고 저실업지 일라홍을 쳐다보앗다。

심홍각이 낙망의 낙망으로 일라홍에게 속은 분풀의 생각하는중 그래도 연연한생각으로 집안으도 들어가기가차마어려워 이리 저리 안골목에서 거이다가

『심홍지댁이 어느댁이요』

뭇는 랑낭한 목소리가 들리자 전신이 옷쇼해지며

『필경 내집을 찾는 모냥인데 낯선지리 업거늘 거누구가내집을 물을가。 낮 차지리잇다하면 일라홍이뿐일것인데。』

하고 얼는 골목 박그로 뛰여나갓다。

그런데 심홍각의 눈에는 젊은 로파 한사람과 너울을쓴 젊은 녀자 한사람반 보일뿐이요 행여나 일라홍이가 아닌가하고 간절이 고대 하든 일라홍은 보이지 안엇다。

심홍각이 고대하는 일라홍이가 분명 아데 서잇것만는일는 일어보지 못한것은 일라홍이가 그러케 처댁지를묻는 하게됨이엿다。

일라홍은 심홍각이 실력나당한 기색으로 두리번거리는것을보고 속으로 우수며

『도련님 기달리섯지요。』

하고 또한 맑고 다정한 부드러운 음성으로 알은체를하면서머리에 쓰는 너울을 버섯다。

심홍각이 크게 기뻐 하며 일라홍을 낫갈고 사랑오로 들어갓다。

이때 게집하인 하나이 그 광경을 보고 얼는 안으로뛰여들어가 심홍각의 모친리씨에게 『마님 도령님이 웬여자를사랑에 불러오섯서요。』 하는 말도써 심홍각과 일라홍이 서로만난것을말하엿다。

리씨부인이 그말을 듯고 얼골빗치 붉어지며

『이자식이 나종에는 집안에까지 논다니년을 불러들이는구나。 암만해도 오늘는두 손 거조를 내고 말어야겟다。』

하고 그게집하인을 큰 목소리도써 불럿다。

이에 심홍각의안집에는 모진바람이 불지, 모진 비가쏘다질시 그형세가 매우 사나웟다。 (續)

海外短信

▲…짤븐『와이샤쓰』

『나치스』독일에서는 최근에 소비절약이란 명목으로 『와이샤쓰』의 아래도리를 두『인치』씩 주리기로되엇다는바 단두『인친』라 하더래도 전국의 『와이샤쓰』 장수가 전부협동해서 이러케주린다면 평장한절약이 될것이라하여 세계의 새로운 화제가 되어잇다.

오디라

九日(金)

▲午前七時五〇分 宮城遙拜
▲同七時五一分(東) 라디오體操
▲同一〇時三〇分 氣象通報 料理製法『수락, 알작, 김자반』 日用品時勢
▲正午(東)時報 오늘일아두실것
▲午後零時五分 獨唱(레코-드)
▲同零時三〇分 뉴-스
▲同一時一五分 婦人時間『化粧이야기』 趙龍安
▲同四時 뉴-스 職業紹介
▲同六時 各道郡士寶話 尹喜永
▲同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同六時三〇分 라디오時局讀本
▲同七時 뉴-스 天氣豫報
▲同七時三〇分(咸) 交換講演『내地方의特殊風俗』 楊仁性
▲同七時五〇分 紀元二千六百年頌歌指導(一) 李升學
▲同八時(東) 管絃樂解說付交響曲 第五番0短調作品六七 베-토벤作曲 第一樂章 알레그로·콘·브리오 第二樂章 안단테·콘·모-토 第三樂章 알레그로 第三樂章 알레그로 日本放送交響樂團 指揮요-제프로-젠슈토크
▲同八時四〇分 野談『初觸後達』 吳祥根
▲同九時一〇分 京畿歌謠 一、遊山歌 二、小春香歌 三、달거리 禹明玉 李玉蘭
▲同九時三〇分 뉴-스解說
▲同九時四〇分 (東)時報 뉴-스 氣象通報 라디오메모 明日曆
▲同一〇時 地方으로보내는뉴-스
▲同一〇時一〇分 初步國語講座(一五) 宋今璇

第一放送

▲午後零時五分 (城)二曲 ▲同六時 (東)童話 ▲同六時二五分 (京)講話 ▲同七時四〇分(自中支) ▲同八時 (東)管絃樂 ▲同八時四〇分 (仙)俚謠 ▲同八時五〇分 (大)漫才 ▲同九時一〇分 (東)時事解說

十日(土)

▲午前七時五〇分 宮城遙拜
▲同七時五一分(東) 라디오體操
▲同一〇時三〇分 氣象通報 家庭메모 日用品時勢
▲正午(東) 時報오늘일아두실것
▲午後〇時〇五分案內(레코-드)
▲同〇時三〇分 뉴-스
▲同一時一五分 家庭時間『廢品回收이야기』 姜昌熙
▲同四時 뉴-스 職業紹介
▲同六時 發明美談『種痘法發明한제너』 金思翮
▲同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同六時三〇分 講演『動物의위命』 李軒求
▲同七時 뉴-스 天氣豫報
▲同七時三〇分 講演『民制度設定에對하여』 京城覆審法院判事 金瀚卿
▲同七時五〇分 紀元二千六百年頌歌指導(二) 李升學
▲同八時 唱劇調 一、短歌 雲淡風輕 二、唱劇調 春香傳中離別歌 朴綠珠 韓成俊
▲同八時四〇分 歌謠曲 一、깨여진丹心 二、旅路八生(기타伴奏 金鳳鳴) 三、알구진運命 (同) 四、十年間쥐라지 五、靑春問答 六、未練의눈물 金鳳鳴 伴奏 京城放送管絃團
▲同九時 連續라디오小說『큐리-夫人』(一) 盧春城編 金鮮英
▲同九時三〇分 뉴-스解說
▲同九時四〇分 (東)時報 뉴-스 氣象通報 라디오메모 明日曆
▲同一〇時 地方으로보내는뉴-스
▲同一〇時一〇分 中等國語講座(二) 金鳳姬

第一放送

▲午後零時五分 (東)土曜코서트 ▲同六時 (城)兒童劇 ▲同六時二五分 (東)講演 ▲同七時四〇分 (東)講演 ▲同八時 (東大)歲寒錄 ▲同八時一五分 (大)寄席中繼

新春國手對陣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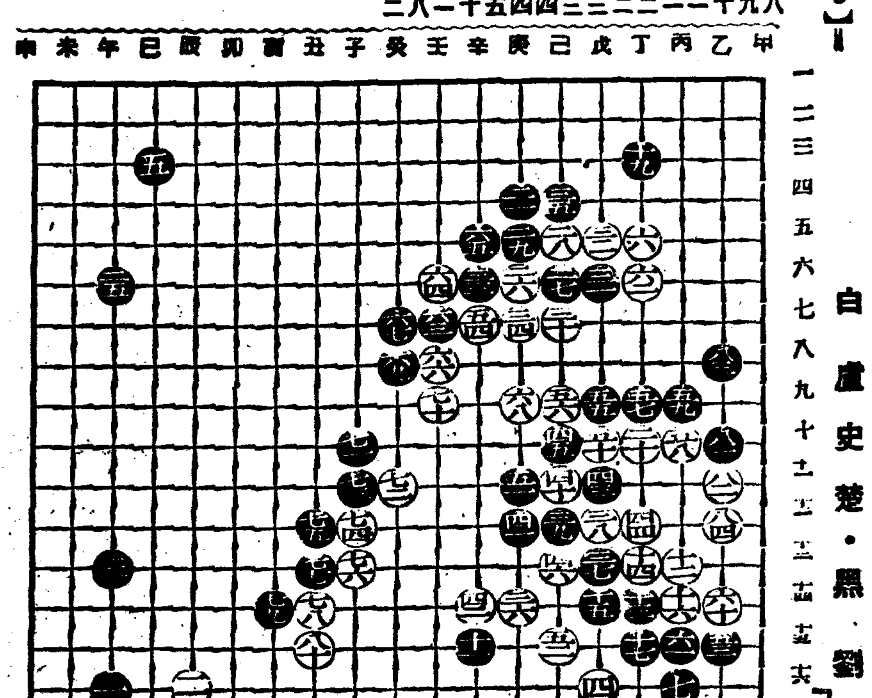
割界雄據誰抗力
黑子의一〇鵬搏萬里

觀戰記 權秉郁

白 盧史楚 · 黑 劉漢鵬 【四目半出】

【6】

○究 癸의八 ●充 壬의九 ○圭 子의十 ●吉 癸의十一 ○圭 子의十一 ●吉 子의十二 ○圭 丑의十二 ●圭 子의十三 ○圭 丑의十三 ●尖 丑의十四 ○圭 寅의十四 ●先 丑의十五 ○圭 乙의十 ●允 乙의十一 ○合 乙의八 ●合 乙의十二



段者에 白六八 誘引으로局勢는 中途豹變하엿다。 黑六九가 癸의八로壓迫을加하니 白七〇은 옥며 亦子덕기로 壬의 九에 走한다 이는스스因果일까、 아마도 白이 庚의 九에 泛忽한 餘波인듯하다 이로말미아마 黑七一이 子의 一〇으로 飛出하니 이는 마치 大鵬새가九萬長天에 高翔한듯하다 稱賛할진저! 以下 白八〇까지는 서로 深刻한 氣分이 업시 그대로劃潤하여서 定界雄據하니 누가 利益이 더될지 疑問이다 白은範圍가 적으나 堅實하고 黑은 浩浩蕩蕩하여 橫無際涯다 黑으로 쓰는 五馬를 輕시키고 其反映으로 外勢를 크게 取하엿다 損益을 計較한다면 아직 鳥之雌雄을 分辨키 어렵다。 又況 黑入ㅡ이 손을 다시 빼스니 乙의 一〇이 肝要할가 中原逐鹿을 꿋마치지 안코 飄然히 遠走하니 누가 敢히 抗力하리요 다음 展開나 잘 보자 近來棋道가 新局面에 너무저저서 혹 過不及한 짜리 업지 안을까 前轍으 懲竹鑑稱도되어 보는가?……

日活映畫

大地に咲く 12·00 3·20 6·50
ニュース ホームグラフ 10·10 1·30 4·50 8·20
三味線武士 10·30 1·50 5·10 8·40

二月七日ヨリ 二月十二日マデ

一均 入場料 30セン 中學 中

黃金座

新興 京劇

六日ヨリ上映番組
新興東京特作 演出 島木孝一 花園の結婚 新田實 眞山くみ子
新興京都大作 天保江戸櫻 大谷日出夫 羅門光三郎
ニュース
第一回 十一時 第二回 一時半 第三回 四時 第四回 七時
大衆席 三〇錢

7日より11日まで上映時間表
ターザンの猛襲 10·00
感激の頃 11·19 2·10 5·00 7·56
ターザンの猛襲 12·45 3·34 6·19 9·15
早朝割引30錢均一
入場料50錢均一
大陸劇場

松竹映畫
5日より11日まで上映時間表
ニュース 10·00 12·54 3·48 6·45
新女性聯盟 10·11 1·05 3·59 7·07
ターザンの猛襲 11·22 2·16 5·10 8·20
開演時間迄早朝割引
入場料金70錢均一
明治座

●半島樂劇界初東京進出
オペラ樂劇團一行
興亞劇團一行
新山太平 其他
新舞臺演劇界 奉讚
關東軍平島名コンビ 新舞臺
樂劇・オケストラ
興亞ショウ演奏
現在京城より西鮮地方 巡業中
釜山劇場

二月七日ヨリ十日
八日ヨリ午前十一時 午後四時マデ 開映
特別料金 階上三十錢 階下二十錢均一
大每ニュース
全發聲 國産映畫
松竹大船超特作 新しき出發
地中海
ジュリアン・デュヴィヴィエ 監督
アーリ・ボール マルセル・シャンタル 主演
地中海に出沒する海賊 密輸船に乘組んだ二人の男と謎の美女
桃花劇場

劇團 阿娘 公演
二月八日(舊正月一日)부터
林仙圭 作
結婚條件 四幕七場
(一名어머니는비보)
舊正月一日부터四日間 晝夜公演 晝間正午 夜間七時開幕
次週番組 映畫
二月十二日부터四日間
ハイテイ、R白狐傳、スキン ダミリアンショウ
時局模範風景、スキン
時間豫告
二月十九日(舊正月十三日)부터
朝鮮聲樂研究會總力演 ◇玉樓夢 七幕十六場 一流名唱總登場
第一劇場

劇團『豪華船』舊正初公演
二月八日(舊正月一日부터)
東劇文藝部編・演出
星泰三 裝置
春香傳 全篇
春香傳은 朝鮮聲樂研究會員…賛助出演
春香傳은 언재어듸서 멋번을보아도 興味잇는演劇이외다
春香傳은 우리가맛당이바더야할情操敎訓의 金字塔이외다
春香傳은 우리가가진最高峰의藝術이외다 자랑이외다
春香傳中에 이번豪華船의春香傳은決定版이라할수잇으니愛劇家諸賢이시여春香傳의眞味에또한번도醉하소서
●次週豫告●
金健 作 悲劇『長恨歌』三幕五場
東洋劇場
電話光二一五四 四四九五番

新富座
二月七日ー十日
八日ヨリ週間午前十一時ヨリ午後五時迄(?)
特別料金階上三十錢階下二十錢均一
大每、讀賣ニュース
松竹大船超特作
美しき母性
主演 水戶光子 若水絹子 坪內美子 德大寺伸
メトロ社超特作日本版
極樂浪人天國
監督 ジエムス・W・ホーン 主演 スタンローレル オリヴア・ハーディ
滿洲映畫協會特作 朝鮮初輸入映畫
寃魂復仇
監督 大谷俊夫 主演 李香蘭

優美館
二月七日より大公開
米インターコンチネンタル 社超特作日本版
魔島カリビアン
アントレル・ルースペルト大作
コロムビア超特作大冒險日本版
雷電惡魔地獄
チャルス・タレット バーバラ・ウヰックス 主演
新興東京超大作
愛情の書 新田實 眞山くみ子
事變ニュース